

“청년, 세상의 중심으로”

# 나주시 청년센터 문 열었다

‘청년가온마당’ 옛 송월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취·창업 역량 강화·청년 간 네트워크 거점 기대



나주시가 지역 청년의 성장과 교류를 지원하는 거점 공간인 '나주시 청년센터' 문을 열었다.

나주시는 2일 옛 송월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설립한 청년센터 '청년가온마당'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년센터 설립은 '청년이 우뚝 서는 나주!'를 표방한 민선 7기 공약사업이다. 나주시가 2018년 수립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청년 간 네트워크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돼왔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전라남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 등 총 2억4000만원을 투입, 지난 6월

옛 송월동 행정복지센터 건물(559㎡)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고 12월 준공을 마쳤다.

센터 건물은 총 2층으로 1층에 공유주방·가운솔·문화공연장·세미나실·스터디룸·금융상담실, 2층은 새싹공방·다목적실 등 청년 교류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만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또는 청년단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센터 명칭 '청년가온마당'은 지난 해 12월 명칭 공모전 최우수작으로 '청년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송상락 전라남도 행정

부지사, 김영덕 시의회의장, 지역도·시의원을 비롯해 행안부, 전남도 관계자, 나주시 청년정책위원회·협의체, 시민·청년단체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청년희망 메시지 작성을 시작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금 전달, 기념사, 테이프커팅식, 센터 내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우리 시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하고 실질적인 소통과 교류, 협업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내실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청년센터 개소에 맞춰 지역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소규모 교육 강좌인 '청년희망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나주시 관내 거주자 또는 교육기관·사업장에서 활동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이달 22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청년희망학교 교육신청 및 센터 이용 예약은 나주시 청년가온마당(☎332-7987) 또는 이메일(nj7987@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공유 공간인 공유주방, 가온net, 새싹공방, 스터디룸은 별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곡성군, 고압 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 중심지 한 발짝

144억 투입해 전선 분야 One-Stop 해외인증 위한 전문시험단지 조성

곡성군은 '고압 전선 국제 상호인정 평가 기반구축사업(이하 '고압전선기반구축사업')'이 2020년도 상반기 전력기반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력기반조성사업은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와 시장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기술개발과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고압전선기반구축사업은 해외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One-Stop으로 해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전선 분야 관련 국제적 수준의 시험평가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압전선기반구축사업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이 2019년 곡성군에 공사를 완료한 '산업용 고압 직류 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사업'의 후속사업에 해당한다.

곡성=김광휘 기자

## 화순군-국민대, 산림산업·생태관광 조성 MOU 체결

풍부한 산림자원·산림과학 전문성 시너지 효과 기대



화순군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국민대학교와 산림산업·생태관광 조성을 위한 MOU(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구중근 군수와 김형진 국민대 산림과학 전문인력양성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MOU 체결로 화순군은 ▲임산물 관로 개척과 임업인 소득 증대 ▲산림과학·임업진흥 분야 상호 협업·연구 ▲산림분야 교육·건설 등 상호교류 ▲인적자원 교류 및 학생 현장학습 지원 ▲산림분야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 산업 전반에 관해 국민대

학과와 협력하게 됐다.

국민대학교는 화순군과 MOU를 체결한 기념으로 1870년경 제작한 조선지도 중 한지에 묘사한 화순 옛지도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형진 국민대학교 센터장은 “산림면적이 73%를 차지할 만큼 산림자원이 풍부한 화순군과 산림분야 협력을 맺어 기쁘다”며 “화순의 산림산업 발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구중근 화순군수는 “산림과학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지닌 국민대학교와 협약을 맺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화순 산림자원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화순이 휴양·치유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장성군 '최첨단 영상장비'로 발빠르게 재난 대응

코로나19 회의 활용... CCTV통합관제센터, 스마트 양방향 재난구조 시스템도 주목

장성군이 최첨단 영상회의장비를 도입해 각종 회의에 활용하고 있다.

군은 3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회의장비를 활용했다. 영상회의실 전면부에 설치된 204인치 LED 전광판을 통해 군청과 각 읍·면이 쌍방향으로 소통됐다. LED 전광판에는 영상회의 화면뿐만 아니라

TV, 인터넷,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

향후, 장성군은 매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를 비롯해 존각을 다루는 각종 재난 관련 회의에 영상회의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밖에도 장성군은 2011년 전남 최초로 CCTV통합관제

센터를 구축한 이후, 지난해 모든 마을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완료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군은 마을방송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스마트 양방향 재난구조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각 가정과 소방서, 인군 마을을 연결하고 있다.

장성=박종영 기자

## 담양군, 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 긴급 행정조치 발동

4일부터 2주간 집회·행사 전면 금지

담양군이 인근 광주광역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담양군은 긴급방역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3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사회단체의

집회와 행사 금지, 방역수칙 준수와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에 따라 4일부터 2주간 다중이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실외 스포츠 시설과 담빛수영장, 문화회관, 체

육관 등 실내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한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을 임시 폐쇄하고 죽녹원, 메타프로방스 등 군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범한**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